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무의식과 욕망의 비판적 재조명

- 라깡과 들뢰즈/가타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모 지 환 (중앙대 강사)

1. 문제의 제기

자크 라깡(Jacques Lacan)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프렌치 프로이트'(French Freud) 학파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정신심리기제를 연구하는 제한된 학문영역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또 그것은 정신질환 치료라는 실행 차원에만 매달리는 정신분석도 아니다. 한정된 연구대상과 고유의 과학적 연구방법, 전문적 훈련과정과 치료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프로이트를 조상으로 하는 정신분석학의 기본 성질이라고 한다면, 라깡의 이론과 실천은 정신분석의 이런 정의적 자질로부터 많은 점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통성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라깡의 정신분석학은 '정통'에 속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라깡은 1964년 '파리 프로이트학회'를 창설하면서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거 회원으로 받아들여 정신분석의 영역을 천하에 개방하고, 자신이 개설한 소정의 대중적 공개 세미나를 거친 사람들에게는 분석가 또는 분석의(analyst)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영역으로서의 정신분석학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그의 '학회'가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고 그의 세미나도 중단 요구를 받는 등 끊임없는 시비에 휘말리게 된 데는 우선 이런 사정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¹⁾

흥미로운 것은 그 '이단적' 라깡이 내건 즐거운 구호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고 정통과 학계 역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이름으로 그를 파문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현대 지성사의 한 에피소드가 된 이 분규는 '아버지(프로이트)의 이름'을 놓고 벌어진 친자확인 소동인가? 아버(기원)의 문제 또는 동일성의 문제를 놓고 가장 과격한 발언을 해온 사람중의 하나인 라깡이 바로 그 아버의 이름 소유권 싸움과 衣鉢계승소동의 한 당사자가 됐다는 사실은 에피소드 이상의 어떤 시사를 던지는 일일까? 라깡이 '정신분석의 집'을 개방하여 역사학, 문학, 언어학, 해석학 등 정신분석과

1) 라깡과 정통학계 간의 시비는 물론 1964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깡은 1953년 파리 정신분석학회(SPP)에서 이탈한 프랑스 정신분석학회(SFP)의 지도적 이론가 겸 교육담당자가 되지만 1961년 국제정신분석학회(IPA)는 라깡과 그 추종자들을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하고 라깡의 세미나는 중단된다. 1964년 라깡이 파리 프로이트학회를 창설하는 것은 이 추방 이후이다.

는 직접적인 학문적 연계가 없어 보이는 분야의 사람들까지도 포섭한 것은 이들 타영역에 정신분석의 통찰을 ‘제공’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그 영역들로부터의 지식과 발견을 정신분석이 ‘흡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정신분석이 라캉에 이르러 여러 학문들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고 지식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무국경의 특권적 자유통행자가 됨과 동시에 해석학, 언어학, 사회이론으로서의 정신분석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이 라캉적 정신분석의 야심만만한 제국주의적 유혹이다.²⁾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이같은 침투와 월경, 경계 삭제와 유혹이 프로이트적 정신분석의 전통 자체에 그 내재적 근거를 둔 힘이고 전략이었던 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라캉의 구호는 정신분석의 통합학문 내지 통합담론적 전략이 프로이트 담론의 진정한 성격이고 방법이었던 주장에 깔고 있다.

라캉이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 프로이트는 후기 프로이트가 아니라 『꿈의 해석』(1900)에서 시작하여 『무의식』(1915)을 쓰기까지의 전기 프로이트이다. 전후기로 프로이트를 나누는 통상적 기준은 그가 인간의 정신심리기제를 ‘의식’(전의식 포함)과 ‘무의식’으로 나누어 파악했던 단계를 전기로 잡고, 이 양분체계가 후일 이드(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라는 삼분체계 속으로 통합되는 단계를 후기 프로이트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무용하지 않다. 의식/무의식이라는 양분체계와 이드/자아/초자아라는 삼분체계는 프로이트의 절묘한 통합에도 불구하고 정신심리의 지형학으로서 각각 다른 성격과 논리를 가진 별개 체계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그 구분을 정당화한다. 라캉 자신도 바로 그 차이를 이용하고 있다. 라캉의 정신분석이 활용하는 것은 후기 프로이트에 근거하는 ‘자아심리학’이 아니라 전기 프로이트에게서 시작되는 ‘무의식의 심리학’이다. 그러나 전기 프로이트 또한 엄연히 ‘프로이트인 한’ 라캉의 정신분석이 최소한 프로이트 집안의 부인할 수 없는 전통 일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외면상 큰 잘못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 ‘무의식의 발견’이 프로이트적 혁명의 실질적 전제산이라면 그 무의식의 전통으로 되돌아가려는 라캉이 오히려 정신분석의 본령에 더 충실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불행하게도 (어쩌면 다행히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분열된다. 라캉은 분명 무의식의 발견이라는 프로이트의 유산을 상속받고 있다. 그러나 그 유산을 어떻게 쓰는가는 프로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자 라캉의 문제이다. 이 유산의 사용법, 정확히 말해 그 ‘증식방법’에 있어서 라캉은 근본적으로 프로이트를 넘어서고 이탈한다. 재산증식은 ‘아들’의 의무인가? 라캉은 프로이트의 이름으로 프로이트의 담론을 재편, 수정, 확대한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그는 자기 방식으로 정신분석을 재구성하고 다시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고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외디푸스(Oedipe) 모델에 대한 재검토와 들뢰즈(Gilles Deleuze)/가타리(Félix Guattari)의 비판적 관점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비판자들은 정신분열증을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욕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욕망, 전체주의적 욕망에 대한 비판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프로이트와 라캉의 무의식이론은 무의식을 외디푸스적 형상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아

2) ‘경계 허물기’의 이 제국주의적 성격은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최근 우리의 일부 지식인들에게서 보듯 무턱대고 흉내내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버지-어머니-나의 가족 삼각형으로 환원한다. 욕망과 무의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항상 가족 이미지로 표현된다. 무의식의 의미는 부친살해와 근친상간의 욕망으로 설명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라캉이 보듯이)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을 표상적인 가족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무의식에서 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리비도의 흐름을 내세운다. 그리고 무의식과 욕망을 틀에 가두는 외디푸스화를 거부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2장에서는 라캉적 틀에서 외디푸스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하여 상징적 질서가 어떻게 마련되며 욕망을 기표의 틀로 설명하는 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이론이 갖는 주요 특성과 논점들을 간략하게 살피고 외디푸스 모델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라캉의 구조주의적 틀과 대비시키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2. 외디푸스적 욕망과 무의식

프로이트는 이성이나 의식을 중심으로 삼고 욕망을 부차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를 공격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 의식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이라는 심연이 숨어 있다. 인간은 무의식의 불투명한 안개에 둘러싸여 있으며, 의식은 무의식이란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바로 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자기 아닌 무의식에 의해 움직인다.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이 억압하는 욕망이 활동하는 장이다. 이러한 무의식은 실수나 착오, 꿈, 신경증 등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는 숨겨진 영역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통해 의식 중심의 사고가 갖는 일면성을 깨뜨리고자 한다. 무의식과 욕망의 틀은 철학적 논의의 기초인 의식적 자아를 통해 투명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전통적인 믿음을 깨뜨린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통해 의식의 전능함이란 신화와 이성의 독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해명할 방법으로 정신분석학을 제시한다. 또 한편으로는 의식의 專制를 제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점에서 그는 계몽주의적 전통을 잇는다.

프로이트는 욕망, 무의식으로 의식세계를 평가절하한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언어적 구조를 이용하여 재독해하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에 의해 짜여지는 무의식이란 '타자(l'Autre)'의 질서에 의해 구성된다. 주체의 무의식을 움직이는 욕망의 기표들은 인간의 욕망을 배치하고 질서지우면서 동시에 인간을 소외시킨다. 라캉에게서 기표들의 연쇄를 이루는 원리는 소쉬르의 언어학적 구조를 프로이트적인 욕망의 틀로 변형시킨 것이다. 또 라캉에게서 무의식의 진리는 언어적 구조로 숨겨져 있다. 그는 욕망의 기표고리들로 의식을 해체하는데, 그에 따르면 의식은 기표들의 구조가 만든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는 철학적 전통이 쌓아올린 의식에 바탕을 둔 허상들의 체계를 파괴한

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정신분석은 보다 완벽한, 이전의 체계를 보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깡은 프로이트에 이어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심층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마련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정신분석학은 의식적 체계를 해체하면서 다시 그것을 무의식의 기초에서 재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문제삼는 외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 이론에서 욕망의 본성을 해명하는 핵심적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문명에 내재하는 불만을 외디푸스와 거세 콤플렉스로 설명한다. 라깡도 역시 프로이트처럼 '서구'의 외디푸스와 거세 콤플렉스에 의존하지만 그것들이 서구적인 틀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고 주체형성에 관한 '보편적' 이론으로 승격시킨다. 프로이트와 라깡에게서 외디푸스 모델은 무의식과 욕망의 본성을 보편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장치이다. 즉 그것은 프로이트에게서는 성적 욕망을 억압하여 정상적인 문화체계를 형성하고, 라깡에게서는 상상계와 상징계로 진입하여 언어적 질서로 매개되는 문화적 체계를 구성하는 계기이다. 특히 라깡은 외디푸스를 거친 무의식의 구조가 보편적이라고 보아 그것을 인간형성, 인간화(homonization)를 설명하는 보편 구조로 이해하며, 이 무의식의 구조를 통해 모든 인간에 내재하는 심리-정신적 작용의 본질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들뢰즈와 가타리는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사회지배의 수단으로 본다. 그들은 무의식과 욕망에 대한 외디푸스 모델이 주체들을 어떻게 현존하는 (가족, 사회-정치적) 권력질서에 편입시켜 그 질서를 강화하고 영속화시키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면 욕망의 근본 구조를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살펴보자. 프로이트가 그리스 비극에서 채용한 외디푸스 비극은 의도하지 않은 (그렇지만 예정되어 있는) 근친상간적 파국-부친살해, 어머니와 결합함-을 보여주는데, 이 비극을 통해 외디푸스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명령이 주어진다. 인간 사회와 문화가 존속할 수 있는 기초는 근친혼의 금지이다. 근친혼이 허용된다면 가족과 사회의 질서는 혼란에 빠지고 만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프로이트는 근친혼에 대한 금지를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 대한 억압과 연결시킨다. 모든 어린이는 외디푸스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외디푸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들은 외디푸스적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외디푸스와 다르게 그를 극복하도록 명령을 받는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이 비극을 인간의 욕망이 빚어내는 드라마에 대입하여 모든 사람을 잠재적 외디푸스(또는 엘렉트라 Electra)로 본다. 그리고 외디푸스를 극복함으로써 비극과 파국을 피하고 정상적 문화와 사회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욕망의 성격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 라깡이 구별한 욕구(besion;need), 요구(demande;demand), 욕망(désir;desire)을 설명해보자.³⁾ 프로이트는 욕구, 본능, 욕망을 구별한다. 그는 본능이 단순한 유기적 욕구와 달리 성적이라고 본다. 본능은 일정한 긴장상태를 억제하려는 생물학적, 유기적 본성의 항상적인 힘이다. 그런데 본능은 표상을 통한 재현(Vorstellungsrepräsentanz:라깡은 이것을 표상 대표 représentant de la représentation로 번역한다)의 중개를 통해서만 심리장치에 속한다. 욕망은 본능의 표상 대표에 의해 심리장치를 작동시킨다.

라깡은 욕망을 결핍의 틀로 설명한다. 그래서 욕망이 결핍의 자리에서 생겨나고 결

3) 욕구, 요구, 욕망에 관한 설명은 Lacan(1966:493-528, 685-695);Ragland-Sullivan(1986:Ch.2);Lemaire(1977:Ch.13) 등을 참조할 것.

핍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본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분리되면서 근본적인 결핍이 생기는데, 이러한 결핍은 빈자리 곧 공허이다. 그런데 이것은 욕망의 질서를 조직한다. 결핍(manque, 틈새 béance)은 이것을 충족시킬 유기적 욕구를 낳으며, 성감대와 문자로 '나타난' 본능에 앞서고, 또한 기표로 표현되는 욕망에 앞서 존재한다. 라캉에게서 이러한 결핍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그런 결핍은 욕망을 짜는 숨겨진 바탕이기도 하다.⁴⁾

또한 라캉은 본능이 표상의 매개를 거친다는 점을 언어적 틀로 이해한다. 그는 욕망을 언어적 의미작용의 체계, 기표들의 환유적 연쇄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어린이는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언어적으로 표현된 '요구(demande)'로 변형시켜야 한다. 즉 자기의 욕구를 '나는 00를 원한다'로 표현한다. 아이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환가능한 언어의 틀로 표현해야 한다. 아이는 이 과정에서 자기의 욕구를 요구로 나타내면서 요구로 표현된 기표 속에 소외된다.⁵⁾ 즉 충족을 추구하는 욕구가 언어적 요구로 표현되면서 그 충족가능성을 상실한다(대상에 대한 기표는 대상의 부재를 나타내므로 그 대상은 기표와 일치할 수 없다).⁶⁾

이것을 외디푸스 모델과 관련시켜 보자. 아버지의 이름이 가하는 위협으로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과 남근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는 “나는 어머니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아이의 욕구 대상은 어머니이지만 (그가 상징질서에 편입되면서) 언어적 요구는 어머니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욕구가 언어적 요구에 의해 부정되고 욕구 대상이 (환유적으로) 대체될 때 욕망이 생긴다. “나는 (어머니가 아닌) 00를 원한다”. 아이의 욕망 대상은 어머니를 대신할 환유적 대체물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 대체물들은 반드시 기표의 형태로 주어지고 표현되므로 그것이 욕구의 충족 대상(어머니)과 일치할 수 없다. 욕망은 반드시 요구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요구로 표현되는 한 충족되지 않는다. 요구는 어머니를 뺀 자리에 하나의 환유적 대체물을 집어 넣는다. 환유적 기표는 대상의 현존이 아니라 부재를 나타내며, 그 자리에 또 다른 기표를 가져온다. 이런 불일치에서 욕망이 생기고 충족되지 않는 기표들의 환유적 사슬이 이어진다. 아이의 욕망은 좌절된다. 또한 이 좌절 때문에 욕망이 지속된다.

3. 정신분석학의 비판적 이해

1) 관념론적 욕망이론비판

들뢰즈와 가타리는 개인의 욕망과 심리를 사회구조와 연결시키려 한다. 그들은 이

-
- 4)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처럼 욕망을 결핍의 틀로 설명하는 시도를 관념론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하의 3장에서 다룬다.
 5) 욕구의 참된 대상은 무의식 속에 남겨진다. 주체는 무의식적 진실과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하는 의식적 소외로 양분되고 주체가 언어적 매개를 거쳐야 하는 한 그는 자신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결코 찾을 수 없다.
 6) 라캉은 욕구, 요구와 관련하여 욕망을 정식화하면서 이것을 “욕구에서 요구를 뺐을 때 그 차이가 욕망이다(Lacan,1966:691)”라고 표현한다.

를 위해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니체적 관점에서 결합시키는데, 프로이트의 ‘리비도’ 경제학과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을 묶는 ‘일반 경제학’을 구상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 배후에 있는 진리를 해독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즉 본능적 혼란에서 개념적 질서를 찾으려 하고, 리비도 에너지의 풍부하고 혼란스럽고, 前의 미적이며 의미화하지 않는 흐름에 대해서 고정된 설명도식을 강요하는 모든 이론-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기호학 등-을 거부한다.

특히 이들은 해석학적 담론을 자처하는 정신분석학 안에 있는 진리-의지를 깨뜨리려고 한다. 정신분석학은 욕망의 일탈들, 신경증적 징후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힘을 지닌 언어로,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고 무의식과 그 효과들의 진리를 말하려 한다.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을 설명하는 개념체계-에컨대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강요함으로써 사실상 자본주의적 질서를 지탱시킨다. 그 개념체계의 효과는 주체들을 억압적 구조의 담지자로 만들고 그들을 이미 할당된 역할에 가둔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처럼 무의식을 해석하거나 이론화하려는 노력이 육체적 충동과 욕망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본주의적 충동과 동행한다고 본다(Norris,1991:55-57).

들뢰즈와 가타리의 특이한 욕망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논점을 살펴보자.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을 헤겔, 프로이트, 라캉처럼 ‘결핍’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관점을 관념론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욕망에 관한 관념론적 이해는 욕망을 결핍(manque:대상의 결핍, 현실적 대상의 결핍)으로 규정한다. “욕망이 현실적 대상의 결핍이라면 욕망의 현실성 자체는 환상적 대상을 생산하는 ‘결핍의 본질’ 안에 있다”(Deleuze/Guattari,1972:32-33,47). 욕망을 결핍으로 보는 틀에 따르면, 욕망은 처음에 부족하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채우는 것이고, 욕망이 그 빈 자리를 채우면 그렇게 충족된 것은 원래의 빈자리에 의해 불러나온 것일 뿐이다. 이처럼 욕망이 현실적으로 결핍된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이고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결핍된 무엇을 ‘의미’하게 된다.7)

들뢰즈와 가타리는 라캉과는 달리 욕망이 결핍과 욕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과 욕구가 욕망에서 생긴다고 본다.

2) 외디푸스 제국주의

들뢰즈와 가타리가 욕망의 외디푸스 모델을 비판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그들에 따르면,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외디푸스의 좌표에 짜맞춘다. 그들은 이것을 외디푸스 제국주의라고 하고, 이렇게해서 탄생한 외디푸스화된 가족을 ‘성가족’이라고 부른다(Deleuze/Guattari,1972:60,83). 이 조작은 모든 욕망을 ‘아버지-어머니-나’로 이루어진 외디푸스 삼각형에 대입한다.

이런 틀은 어린이를 아직 외디푸스화되지 않은, 그래서 외디푸스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외디푸스-이전(pré-Oedipe)’으로, 정신병자를 외디푸스화되지 않고 그 바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외디푸스-바깥(exo-Oedipe)’으로, 비서구적 민족들을 인간화

7) 예를 들어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충분한 돈의 결핍을 만든다. 그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다. 연인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다’는 욕망이 자기를 연인 없는 상태 즉 사랑이 결핍된 상태로 만든다.

의 보편 구조인 외디푸스 모델에 맞서/벗어나 다르게 사회화된 ‘외디푸스 저쪽’ 또는 ‘외디푸스에 맞섬(para-Oedipe)’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외디푸스를 다른 형태들의 보편적인 원형이나 중심으로 삼는다. (어떤 논자는 외디푸스 형상이 사회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기도 하지만) 구조주의적 모델에서 외디푸스는 사회와 역사적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구조이다.

그런데 들뢰즈와 가타리는 정신분석이 주장하듯이 무의식 자체가 구조적인 것도 인물에 관한 것도 아니며, (라캉처럼) 상상계와 상징계로 구별되어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프로이트와 초기 정신분석가들이 무의식과 욕망을 통해 자유로운 종합의 영역들을 발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욕망의 자유로운 흐름을 마련하는 목적 없는 결합, 배타적이지 않은 이접들, 특정화되어 고정되지 않는 결합, 그리고 완결된 총체가 아니라 부분적 대상들이나 흐름들과 같은 측면이 정신분석 자체에 의해 무력화된다고 비판한다(Deleuze/Guattari, 1972:62-63, 86-87). 그들이 볼 때 이처럼 모든 욕망이 외디푸스적 욕망으로 환원되어 설명됨으로써 욕망의 자유로운 종합이 금지되고, 잠재적 파괴력이 순화된다. 정신분석이 주장하듯이, 외디푸스화가 바로 인간화라면, 이것은 욕망을 길들이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이러한 외디푸스 좌표에서 아이의 욕망이 가진 잠재력이 부친살해와 근친상간에 대한 욕망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그것이 금지됨으로써 안전하게 숨겨지고 억압된다.

프로이트가 외디푸스를 찾아내고 그것을 아버지-어머니-나의 가족 삼각형에 대입하기 때문에 욕망-생산은 인물, 이미지, 구조로 바뀐다. 아버지에 대한 상반된 욕망과 아버지가 대표하는 법의 금지, 어머니와 분리되지 않은 일치를 추구한다는 틀에 따라 욕망은 가족적 인물에 관한 것으로 바뀌고, 개인들에게는 가족극장에서 말을 배역과 ‘성격(character)’이 부여된다. 여기에서 욕망 경제의 근본 개념들-노동과 투입-은 무의식의 표현인 표상들에 종속된다. 이렇게 해서 외디푸스와 무관한 욕망 생산의 본성이 외디푸스 좌표들에 포개진다.

이처럼 정신분석은 욕망 전체를 리비도에 의해 투입된 사회적 장과는 무관한, 그리고 사회적 장과 독립된 단자인 가족적 규정에 포개다. 외디푸스화는 인간화를 ‘가족적’ 인간화로 축소시키고, 가족적 ‘인간화’로 보편화시킨다. 이런 틀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사회적 과정에 있든지 동일한 외디푸스적 모델을 재생산한다. 모든 인간은 보편적 외디푸스 정식의 사례들이다. 다양한 유형의 인간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는 동일하다.⁸⁾

4. 맺음말

프로이트는 욕망의 해석학을 추구하고, 라캉은 같은 맥락에서 욕망의 언어학을 마

8) 결국 정신분석은 외디푸스, 거세, 법으로 무의식을 가족적 표상체계로 변형시킨다. 정신분석은 상징적 표상을 일정한 대상들과 객관적인 사회조건들에 관련시키지 않고, 표상을 리비도로서 욕망의 주관적이고(객관적이지 않고) 보편적인(비역사적인) 본질에 관련짓는다. 즉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을 문제삼지 않는다.

련하고자 하지만, 들뢰즈는 이처럼 욕망의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를 거부한다. 진리는 하나의 보편성으로서 모든 차이들을 제거하고 동일화하는데, 정신분석 역시 보편적인 '동일한' 욕망으로 '다양한' 개인들과 '상이한' 사회적 형식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법칙과 질서의 이름으로 차이를 억압한다.

프로이트와 라깡은 무의식의 배후에 있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같다. 이들은 무의식의 본질을 추구한다. 이러한 본질이 발견된다면 모든 인간과 모든 사회와 역사에 적용될 수 있는 불변적 본질-물론 의식적 본질은 아니고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논리를 갖춘 본질-이라는 만능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로이트와 라깡의 무의식적 본질은 가족의 범위에 국한된 개인의 심층구조를 사회적 관계를 배제한 형태로 추구한다. 그들에게 개체화된 욕망의 보편구조는 사회관계와 과정들을 고려하지 않고도 하나의 틀로 (또는 그것의 적절한 변형으로) 다양한 사회 안의 개인들을 동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⁹⁾

들뢰즈와 가타리를 라깡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들의 비판은 라깡과 전혀 다른 관점과 목표를 지닌 것으로서 프로이트에 대한 창조적 독해로 볼 수 있다. 이들은 프로이트가 발견한 (그렇지만 끝까지 관찰시키지 못한) 욕망의 생산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켜 이것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니체적 틀로 마르크스적 내용을 결합시켜) 욕망과 사회의 상관함수를 구하려고 한다.

왜 세삼 프로이트인가? 왜 라깡인가? 사회복지학의 틀에서 정신분석학을 재조망하려는 시도는 과연 필요한가? 왜 모던시대보다 포스트모던시대에 프로이트가 많이 언급되는가? 프로이트의 망령의 복귀가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 열려진 틈새를 비집고 들어서서 꼼꼼하게 비판적 시도를 할 때 그 물음은 가능해질 것이다.

9) 프로이트는 원시인의 타부를 강박신경증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원시인들은 모두 신경증 환자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부모의 3년상을 치르는 자식은 모두 신경증 환자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과연 그런 장례의식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인가? 모두가 신경증 환자라면 정상을 정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참 고 문 헌>

- 권택영 외 역, 『자크 라캉의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4.
- Best.S. & Kellner.D., *Postmodern Theory : Critical Interrogations*, Macmillan, 1991.
- Cooper, *Death of the family*, N.Y.Pantheon, 1971.
- Deleuze.G. & Guattari.F., *L'Anti-OEdipe*, Les Editiond de Minuit, 1972;최명관 옮김, 『양띠 오이디푸스』, 민음사, 1994.
- Deleuze.G., *Nietzsche et la Philosophie*, PUF, 1962;신범순 외 역, 『니체, 철학의 주사위』, 인간사랑, 1993.
- ドゥルース.G., 「精神分析關する四つの提言」, 『現代思想』, 臨時増刊號, 1984. 9.
- Lacan.J., *Ecrits*, Editions du seuil, 1966;tr. by A. Sheridan, *Ecrit:A Selection*, W. W. Norton, 1977.
- , *Le Séminaire de Jacques Lacan, Livre VI;Les concepts fondamentaux de la psychanalyse*, ed. by J-A. Miller, Seuil, 1973;tr. by A. Sheridan,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Penguin, 1977.
- Lemaire, *Jacques Lacan*, tr. by Macey.D., Routledge & Kegan Paul, 1977;이미션 역,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4.
- Norris, *Spinoza and the Origins of Modern Critical Theory*, Basil Blackwell, 1991.
- Ragland-Sullivan, *Jacques Lacan and the Philosophy of Psychoanalysis*, Croom & Helm, London/Canberra, 1986.
- Reich.W., *The mass Psychology of Fascism*, Penguin Books, N.Y., 1978(1933).